두 작가가 쓴 '노인'과 '바다' 이야기

박이수 '혼자라면' … 노인 문제 오늘의 관점서 환기
강성오 '졸복' … 바다를 끼고 사는 섬사람들의 애환

19일 담양가사문학관 출판기념회

박이수 작가

강성오 작가

'노인'과 '바다'.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다도해를 거느리고 있는 남도의 관점에서는 친숙한 단어다. 지역적 관점에서 '노인'과 '바다'는 불가분의 관계라기보다 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문제와 바다를 배경으로 각각 작품집을 펴낸 두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14) 출신 박이수 작가와 한국해양문학상 우수상(2016) 수상자인 강성오 작가가 최근 소설집을 펴냈다.

박 작가는 장편 '혼자라면'(문학들)에서 외로운 노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강 작가는 '졸복'(문학나무)을 통해 변화무쌍한 바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두 작가의 소설을 결합하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색깔이 다른 두 작품은 각기 사회문제로 부각된 노인문제,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묵직한 울림을 준다.

먼저, 지난 2016년 소설집 '부표의 전설'을 펴낸 지 3년 만에 장편을 발간한 박 작가는 "젊음과 늙음은 삶의 표피일 뿐, 지금 당신의 삶은 빛나고 있는가"라고 진지하게 묻는다. 소설의 첫 시작부터 도발적이다. "나는 그때쯤 생을 끝낼 거라고. 어렸거나 젊었던 어느 순간 왜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먹었던 나이였다."

주인공은 아내가 있는 남자 광일 씨와 사귀는 일흔세 살 장영희 씨다. 표면적으로는 노인의 사랑이자 불륜이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성별과 나이를 잊어버리고 주인공의 내면에 빠져들게 된다.

작품의 화자는 한때 짧은 결혼생활도 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논술 교습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부모님의 유산과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그녀의 곤궁함마저 모두 덮어주지는 못한다. 그녀의 곤궁함은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텅 빈 내면, 허무와 권태에서 파생되는 외로움이다.

그녀가 정수기 설치 기사나 이웃집 남자에게 자신을 한 번 안아달라고 도발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사랑이나 교감의 욕구와는 무관하다. 무미건조한 일상의 세계에서 낯선 남자와의 접촉을 통해 작은 파문을 경험하고자 한다.

박 작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두 노인의 관계는 욕망이나 격정보다는 그들만의 사랑법으로 들여다보는 게 순리다"라고 말했다.

한영인 문학평론가는 "노인은 단지 사회경제적 지표로 환원될 수 있는 통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 모두 고유한 삶의 욕망을 지닌 채 다가오는 죽음을 예민하게 자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박이수의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묵직하게 일러준다"고 평한다.

이와 달리, 강성오 작가의 첫 소설집 '졸복'에는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 핍진하게 그려져 있다.

작품집에는 바다와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 9편이 실렸다. 그 가운데 모두 6편이 바다를 토대로 한 소설이어서 책을 펼치면 푸른 파도 소리가 들리고 물큰한 갯내음이 밀려오는 것 같다.

"바다는 수많은 문학 작품 배경으로 등장하는 공간이지요. 누군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구요.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 창작의 원초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9편의 작품 중 '미끼', '분재', '섬소사나무', '농어 주낙', '상괭이', '졸복' 등 바다 이야기가 7할을 차지한다. "나를 키운 건 7할이 바다"라는 말이 그저 그런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완도 생일도가 작가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나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작가는 "담양생오지에서 소설공부를 하던 초창기에는 잘 아는 분야가 바다라서 바다 이야기를 많이 썼다"며 "그러나 등단 이후에는 바다사람들의 애환을 담아야 한다는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표제작 '졸복'은 급성 간암에 걸린 여자가 사는 '멸막'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멸막으로 낚시꾼이 찾아와 졸복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했다고 한다. 시한부 삶을 사는 여자는 이독치독이라는 말을 듣고 졸복을 먹으려는 생각까지 했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낚시꾼이 말한 해독제를 믿고 졸복을 먹고 사경을 헤맨다.

이처럼 '졸복'에는 섬사람들의 애환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발문을 쓴 문순태 소설가는 "강성오의 소설을 읽으면 허먼 멜빌의 '백경'이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 앞으로 강성오 작가가 바다소설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평했다.

강 작가는 향후 작품으로 장편을 구상 중이다. 장편은 디테일한 취재와 긴 호흡이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발품을 팔며 취재를 할 생각이다. "장편을 생각하니 고향으로 긴 시간 여행 간다는 기분이 든다며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다"

한편 두 작가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담양가사문학관에서 열린다. 문의 010-9153-7855, 010-4377-541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젊은 국악연주자들 광주서 신명 한마당

'그루' 17일 금호아트홀 콘서트

차세대 국악 연주자들이 젊은 감각을 담은 공연을 선보인다.

창작국악그룹 '그루'〈사진〉는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아름다운 유·스퀘어 국악 콘서트'를 연다. 금호주니어·시니어·실버콘서트를 열고 있는 유·스퀘어는 '아름다운 국악 콘서트'를 진행하며 국악인들의 연주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그루터기를 줄여 이름을 지은 창작국악그룹 '그루'는 신선민(대금·생황·소금), 이화림(가야금), 이영미(타악), 신혜인(소리), 신은성(피아노)으로 구성됐다.

나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에서 활동한 해금 연주자 문보라가 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앞으로 공연을 통해 국악의 현대화·대중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공연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전통 민요와 창작곡 등을 선보인다. 먼저 '진도아리랑', 경기민요 '신뱃노래'를 그루만의 색을 입혀 편곡한 기악곡으로 선보이며 무대를 연다. 이어 '닐리리야', '강원도아리랑', '아리랑', '정선아리랑'의 특색을 살리면서 새롭게 꾸민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후반부에서는 해학적인 가사와 흥이 나는 자진모리 장단으로 만들어진 창작곡 '절세미녀'와 낭자가 이별 후 도령을 그리워하며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 '편화', '축전가', '꽃이피다' 등 그루의 창작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65세 이상 무료). 문의 062-360-84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계 속 한국어문학 조명 국제학술대회 열린다

17~18일 전남대서

21세기는 다문화 시대이자 다문화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시대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과 언어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화에 따른 지역 연구와 맞물려 한국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세계 속의 한국어문학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지역어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 교수·전남대 국문과 BK21+사업단)은 17~18일 G&R Hub에서 이틀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 속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영국, 체코, 불가리아, 독일,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9개국 연구자들의 발표와 국내 15개 대학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앞서 언급한 9개국에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국내 한국어문학의 연구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발표와 토론도 진행된다. '국내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대 국문과 표인주·이미란·조경순 교수의 발표를 비롯해 대학원생 분과 등에서 모두 22건의 논문이 발표된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라 실피드' 출연 객원무용수 모집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가 오는 2월15일 오후 4시까지 발레 '라 실피드'에 출연할 객원무용수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내·외국인 발레 전공자로 오는 2월 25일부터 6월26일까지 '라 실피드' 공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신청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내려 받은 뒤 전자우편(gcb201712@gmail.com)으로 내면 된다. 오디션은 오는 2월20일 오후 1시 시립발레단 A홀에서 열리며 당일 현장에서 합격 여부를 통지한다. 문의 062-522-8716.

/백희준 기자 bhj@

자기성찰·귀향 그리고 여백의 미학

전석홍 전 전남지사 6번째 시집 '원점에 서서' 펴내

"가랑잎 한 잎 두 잎 흩날립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시편들. 하나하나 주워 모아 한 권의 시집으로 엮습니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영암 출신 전석홍 시인이 6번째 시집 '원점에 서서'(시학)를 펴냈다.

모두 7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된 시집에는 자기성찰, 귀향, 여백 등 정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번 시집까지 모두 6권의 시집을 발간한 데서 보듯 시인은 쉬지 않고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어느 새 출발 지점 다시 돌아왔구나/ 땅과 하늘 길/ 굽이굽이 바람서리 이겨내면서// 마음호수 잔잔하다/ 겨루어야 할 일도/ 안개 속 헤매야 할 일도/ 의자 다툼마저 이제 없다// 파아란 하늘이/ 마음속 빈 자리 가득 메우고 있을 뿐…"

표제시 '원점에 서서'는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고 다시 제자리에 선 '나그네'의 심사가 담겨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인생 만년에 '문학의 농장'을 가꾸며 살아가는 노(老)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오래 끼고 다녔던 색안경이 사라지고 산과 들, 사람, 정치 뜨락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자기성찰과 동심의 시심은 지나온 시간을 그렇게 서정적으로 윤색한다.

"스쳐 가는 자연 바람만 상쾌하다"고 고백하는 시인에게서 길고 긴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고 또 다른 출발선에 선 감회가 읽혀진다. 아마도 새로운 출발선은 문학이라는 여정이 아닐까 싶다.

이명재 문학평론가는 "철 따라 꽃 피고 영그는 문학 과수원에서 풍성한 과일과 건강으로 창작의 보람을 오래도록 누리게 된다"며 "어쩌면 변증법적으로 오랜 나그네 길을 거쳐서 드디어 오아시스 같은 문학의 본고장에 돌아와 자리잡은 장본인"이라고 평한다.

한편 전 시인은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으며 '담쟁이 넝쿨의 노래', '내 이름과 수작을 걸다' 등의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 대 화 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죽소품만들기
☎010-3906-17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 강 버 티 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외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 집 고 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 · 가방 · 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 흥 나 루 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 담 철 학 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 · 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 · 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타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 학 철 학 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 울 표 구 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루 팡 닭 강 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 · 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아맨션 건너편)
☎062)251-8400